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March 2014 vol.108

이달의 이슈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융합 활성화 방안
김세훈
콘텐츠 중심 창조적 문화도시 발전방향
이병민

생생리포트

만화문화공간 '재미랑' · 만화의거리 '재미로'
조성현황과 운영활성화 방안
박보경
인포그래픽스
서울시민들, 은퇴 후 생활 계획은?
서울경제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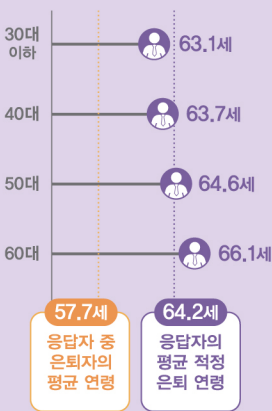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부록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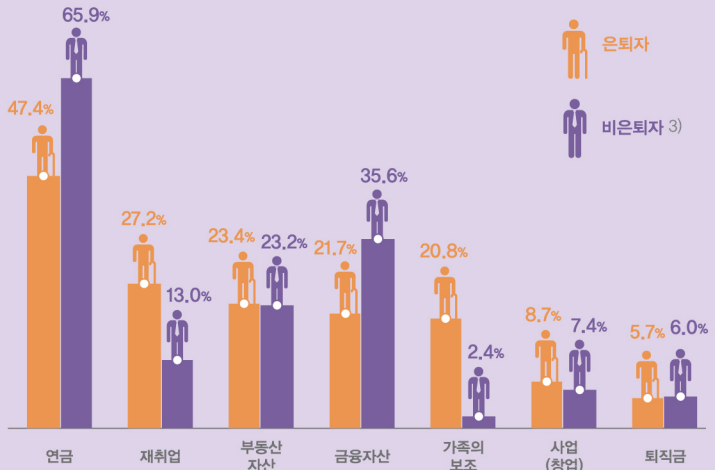
3

서울시민들, 은퇴 후 생활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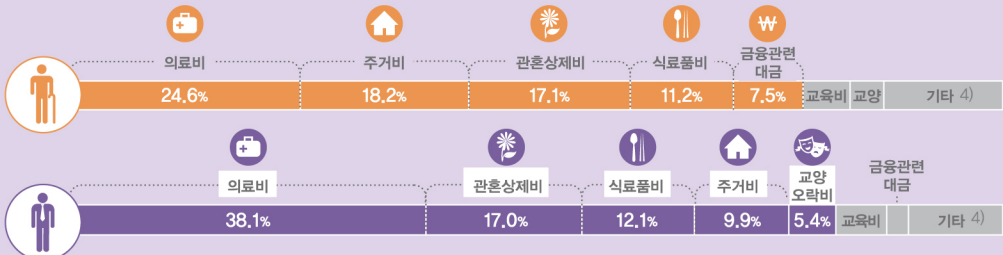
연령별 은퇴 걱정 연령과 은퇴자 평균 연령



은퇴 후 생활비 총당 계획과 방법²⁾ (복수응답)



은퇴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이달의 이슈 3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융합 활성화 방안**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9 **콘텐츠 중심 창조적 문화도시 발전방향**
이병민(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생생리포트 19 **만화문화공간 '재미랑' · 만화의거리 '재미로' 조성현황과 운영활성화 방안**
박보경(서울산업통상진흥원 정책사업본부 애니타운조성팀장)

인포그래픽스 29 **서울시민들, 은퇴 후 생활 계획은?**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경제동향 35 **요 약**

37 **생 산**

39 **소 비**

40 **고 용**

43 **물 가**

44 **부동산**

46 **금 융**

54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융합 활성화 방안



김세훈*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sehunk@sm.ac.kr

1. 문화예술영역과 융복합

최근 문화예술과 다른 학문, 산업, 기술 영역간 융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만남,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의 융복합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담론의 영역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근래 들어 부각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한 강조나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융합 또는 융복합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러한 경향에 대한 관심은 각 분과 영역의 발전이 더 이상 개별 영역 안에서의 발전 모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융합과 관련하여 최근 그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 영역과의 융합이다. 문화예술과의 융합에 대한 관심은 과학, 기술, 산업, 의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이것의 인문학적 기반에 대한 강조(임학순 2010; 한동승, 2012)나, 의학과 예술의 역사에 대

* 저자 학력, 경력 최근 연구:

- 버밍엄대 박사
-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 현 숙명여대 교수
- 최근 연구: 문화예술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예술정책과 타 정책영역간 협력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등

한 고찰을 통해 두 영역간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접근(허정아, 2010), 융합디자인(Convergence Design) 개념을 통해 예술과 산업기술의 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남미경, 2012),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창의성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비교를 통해 두 영역간 융합을 강조하는 입장(임경순, 2011) 등은 기존에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왔던 영역들이 타 영역, 특히 문화예술 영역과의 연계에 관심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간 융복합의 현실

융복합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된 문화기술대학원(Culture Technology)이나 ‘기술인문융합창작소’ 설립 등은 문화예술과 산업, 기술의 융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¹⁾ 2011년 제정된 ‘산업융합촉진법’은 각 영역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문화예술과 산업간 융합을 법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간 융합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합 활동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융복합을 위한 여러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진한 것은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융복합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영역간 융복합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융합형 인제는 아직까지 많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재를 양성해야 할 대학의 교과과정은 융복합을 가르치기에 여전히 매우 경직적이다. 예술대학에서 산업이나 기술과의 융복합 교과과정은 거의 찾기 어려우며, 산업 영역에서 예술 및 인문학 교과과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처럼 문화예술분야와 콘텐츠 분야의 교육과정이 서로 유리(遊離)되어 운영됨으로써 융합인재 양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융복합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전문인력은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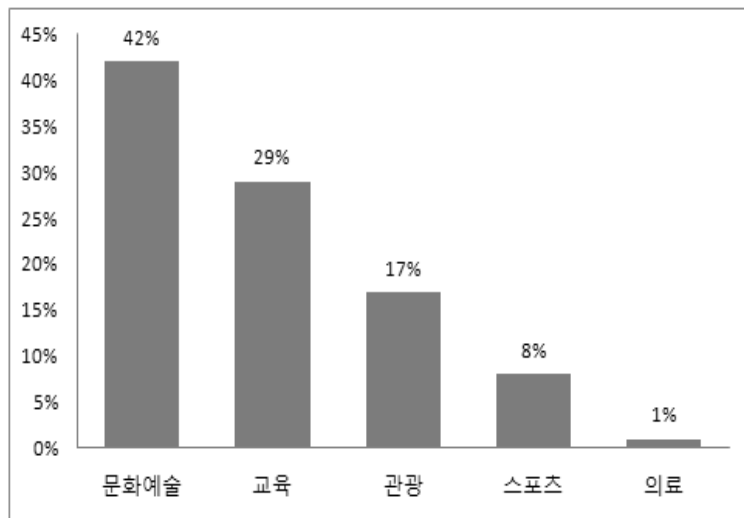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의 융합과 관련하여 이 두 영역간 융합을 매개하는 다양한 활동,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 부처나 일부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융복합을 위한 활동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합

1) 2005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안에 설립된 문화기술대학원(Culture Technology)이나 2012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안에 설립된 기술인문융합창작소는 문화예술분야와 기술, 산업 영역간 융복합을 위한 기초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41개 조사 대상 콘텐츠 기업 중 71.6%가 인력을 원활하게 채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예술분야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항상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두 영역간 경계를 넘나드는 인재의 배출이 많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융복합 활동들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술계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이호섭, 2011)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문화산업, 창조산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은 있지만 실제로 직접 관여해 본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65% 정도는 문화예술이 문화산업에 활용되는 사례를 모르고 있거나 적어도 직접 경험한 사례가 없다. 이들은 또한 향후 콘텐츠 산업과 문화예술의 연계 활성화가 문화예술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현행 연계활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는 현재의 교류에서 저작권보호 문제(22.9%)나 콘텐츠산업 자체의 불안정성(21.5%),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영역간 교류 부족 문제(20.1%)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호섭, 2011: 55).



<그림1> 콘텐츠산업과 가장 활발하게 융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

자료: 이용관 (2012), 문화산업에서 콘텐츠산업으로의 정책변동과 미래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3.

분야간 융복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산업융합촉진법 제5조는 정부로 하여금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그 계획을 심의하게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는 문화예술분야와 콘텐츠산업 영역의 융합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며, 그러한 융합 활동이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정책적 관심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1> 문화예술종사자들의 콘텐츠 산업과 연계에 대한 인식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에 활용되는 사례에 대한 인지도	전혀 모른다	6	6%
	알고 있으나 정확한 사례는 모른다	28	28%
	사례를 알고 있으나 직접 경험해 본 적 없다	31	31%
	사례를 직접 경험해본 적 있다.	27	27%
	작품구상단계부터 적극 고려하고 있다.	8	8%

자료: 이호섭 (2011).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연계에 대한 문화예술종사자의 인식과 발전방향” . 문화예술경영학연구, 4(2), 52.

또한 법에 기반한 융합활동의 실천에 있어서도 영역간 융합이 ‘기획단계’부터 검토되기 보다는, 융복합 대상이 되는 각 영역이 독자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실행 단계’에서 융복합 활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영역이 상호 장점에 기반하여 타 영역의 장점을 자기 영역으로 흡수하는 실질적인 융복합을 이루어내기보다는 다른 영역을 종속적, 부차적으로 자신의 기존 틀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융복합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융복합을 통하여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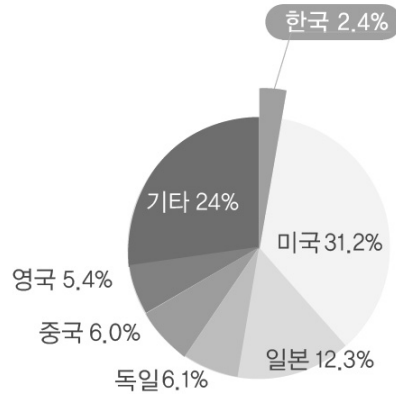
3. 융복합 활성화의 과제

우리사회에서 콘텐츠 산업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가운데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를 차지한다.

콘텐츠 산업이 보다 성장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영역, 특히 문화예술 영역과의 융복합이 보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

이,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영역간 융합을 위한 담론이나 정책적 환경들은 이미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이 보다 풍부한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현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실천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간 성공적 융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³⁾

첫째,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적 계획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융복합과 이를 통한 성과는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융복합 인재의 육성은 융복합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육과정 안에서



<그림2> 콘텐츠산업 비중

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문화예술분야나 콘텐츠 산업 영역에서 융복합 주제는 아직까지 현실과 기대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영역간 실천적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예술대학이나 이공계 대학들이 상호 교과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각 교과과정 내에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정들이 개설하는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다.

둘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간 지식, 정보, 인적 교류의 폭넓은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에도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영역간 융복합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융복합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그러한 교류활동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참여해본 경험이 극히 미미하다면, 기존의 융복합 활동들에는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융복합을 위한 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융복합 대상 영역 관계자들이 그 교류를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만남과 교류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법적, 제도적으로 융복합이 명시화되어 있는 영역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융복합을 추진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

3)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융합을 위한 과제는 이윤경(2009), 이용관(2012), 임학순(2012) 등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영역간 융합을 위한 포괄적 제언을 하기보다 현 단계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한다.

동들은 유관 영역들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실제의 협력활동이 정책이나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단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외형적으로는 융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지만, 실제 실질적인 융복합 활동은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초래한다. 따라서 콘텐츠산업과 문화예술영역간 실질적인 융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법과 제도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 융복합 활동들을 내실화하고 이에 기반한 사업들을 실천적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남미경 (2012), “융합디자인을 통한 산업기술의 창조적 가치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4), 107-116.
- 이용관 (2012), 문화산업에서 콘텐츠산업으로의 정책변동과 미래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호섭 (2011),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연계에 대한 문화예술종사자의 인식과 발전방향,” 문화예술경영학연구, 4(2), 41-69.
- 임경순 (2011), “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 한국과학사학회지, 33(1), 161-191.
- 임학순 (2010), “예술과 문화기술 연계를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예술경영연구, 16, 57-76.
- 한동승 (2012), “문화기술과 인문학,” 인문콘텐츠, 27, 195-208.
- 허정아 (2010), “의학과 예술의 융합적 상상력,” 디자인융복합연구, 21, 1-14.

콘텐츠 중심 창조적 문화도시의 발전방향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yurifin@konkuk.ac.kr

1. 창조경제의 발전과 문화도시의 발전

21세기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의 발전에 이어 창의력·상상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발전 키워드 또한 소위 ‘포드주의’로 대변되던 대량생산에서 정보, 혁신, 지식을 거쳐 ‘상상력’이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라는 화두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경제의 패러다임 기저에는 ‘문화’와 삶의 중요성이 기반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문화산업의 발전방향과도 연관이 있다.

이는 제조업에서 감성기반 창조력과 다양한 문화콘텐츠시대로의 진화를 의미하는데, 창의성과 콘텐츠 시대로의 이행과 함께, 정책적으로는 소비자이자 생산자, 수요자인 국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문화적 삶의 질이 지역과 공간을 배경으로 점차 중요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지리학 전공),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 (전)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 창조적 장소브랜딩 전략을 위한 연구(2013), 창의적 대학의 역할을 통한 지역발전의 특징 연구(2013), 대학에서의 창의성 발현을 위한 문화콘텐츠 교육 개선방안 탐색(2013), 소셜네트워크 리소스의 적용과 활용(201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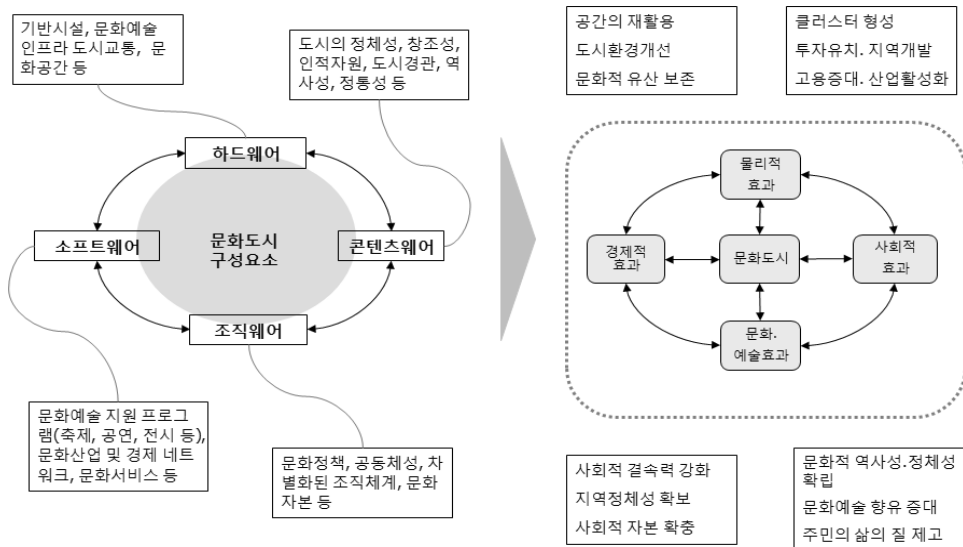
특히, 문화도시와 관련하여 ‘콘텐츠’를 고려한다는 것은 발전인자로서의 ‘창의성’을 고려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다양한 도시의 보유 콘텐츠가 산업화할 경우 타 산업들보다도 공간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한 문화적 소양의 근거리 네트워크이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도시의 중심이 되며, 주축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는 도시의 집적성을 높이면서, 단순한 수익구조 창출 이외에도, 브랜드 가치제고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창조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전통문화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창출하고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산업을 통해 보자면, 지역경제에서 대표적인 창조산업인 문화산업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해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창조적 환경과 관련하여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도시’ 내지 ‘창조도시’의 경우는 문화를 기반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양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Florida, 2002).

한국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을 ‘(창조)인재’라고 말하며, ‘사람중심’의 성장,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4.0의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제로서 창의성의 가능성에 대한 제언이 동시에 한국적 발전전략의 트렌드가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정보화에서 이제는 창조화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균형적인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하는 글로벌시대의 지역으로 보자면,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원고는 전체적이고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핵심 콘텐츠 관련,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지역의 선순환을 위한 가치사슬 특성의 강조,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성과 네트워크 지역 간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생태계의 관점에서 문화와 관련한 공간의 특성을 거론하고, 창조적 문화도시의 발전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알아보고자 하며, 기존의 문화도시 논의와 구분하기 위해 ‘창조적 문화도시’라고 명명하고, 방향성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히 서울시에서의 창조적 문화도시 조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콘텐츠 중심 문화도시의 특징

문화도시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문화도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콘텐츠와 산업, 하드웨어로서의 시설, 소프트웨어로서의 프로그램, 이러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운용하는 주체, 문화인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최근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과 산업기반 콘텐츠들의 풍성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역사와 전통, 최근의 산업발전으로 인한 성과물들의 창출, 새롭게 대두되는 공공디자인과 도시브랜드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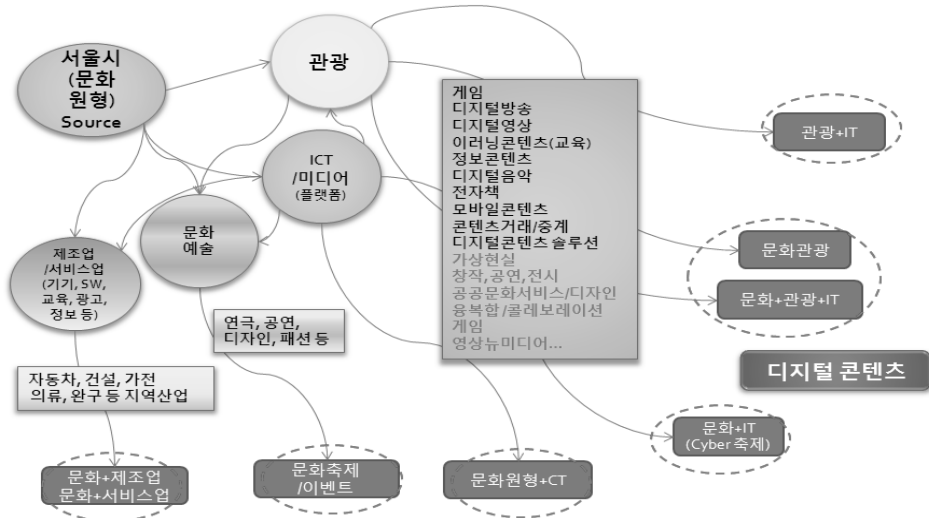
자료: 이병민(2012)

<그림 1> 문화도시의 구성요소 및 관련 효과

결국, 하부구조로서의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과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 기존 도시들에게 가장 부족하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하드(hard)'한 기반시설 속에 채워지는 '소프트(soft)'한 문화적 요소들과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하드인프라는 그릇이고, 그 안에서 소프트인프라(부가가치)가 창조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를 사례로 보자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다양한 시설물들과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러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운용하는 조직웨어 등으로 정리가 가능하다(그림 1). 이때, 하드웨어는 시설, 인프라, 다양한 문화적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물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분위기 등이 관련되며,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소프트웨어는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축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적 예술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측면과 문화예술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조직웨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제도 및 조례 등 지원이 관련될 것이며, 서울시의 경쟁력 제고 및 경제적 성장 촉진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때 생태계를 연결시킨다면, 공동체 성이나 참여와 개방, 소통과 협력이 관계된다. 콘텐츠웨어는 인적 자원의 창의적 활동 및 도시의 창조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서울시의 창의적 활동과 역량, 문제해결능력 등이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콘텐츠의 창작, 기획에서 제작, 개발, 생산이 선순환구조를 거쳐, 유통, 서비스되고, 서울시라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 내외의 소비와 재생산의 외연확장 등을 거치고, 콘텐츠와 문화예술 뿐 아니라, 관광, IT,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연관 맺으며, 다양한 파급효과를 생산하는 순환시스템을 발전할 것이다. 이에 보다 부연하자면, 다양한 분야의 파급효과는 단위지역으로서의 서울시라는 창조적 문화도시라는 공간에 있어 여러 분야와 관련이 있다(그림 2).



자료: 이병민(2012)의 내용을 일부 수정

<그림 2> 문화도시 연관분야의 다양한 파급효과

3. 창조적 문화도시의 발전방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창조적 문화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서울시내에서 콘텐츠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콘텐츠 생태계가 중심이 되는 창조적 문화도시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의 창의적 자산을 확충하고, 구성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교육오픈 소스화 등 글로벌 시대 개방형 지식공유체계가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창조적 문화도시가 갖고 있는 암묵지의 자산화를 피하고, 서울시내 창조적 계급을 양성하기 인적 자원의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 권역 내 콘텐츠 교육관련 대학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치 해결에 주력하며, 전문적 콘텐츠의 교육가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콘텐츠 리터러시 차원의 창조적 문화도시 콘텐츠 전문 멘토 양성 및 체계마련, 서울시 전문 콘텐츠 전문가 양성 및 지역 대학 전문 강사, 교수급(faculty) 인력의 양성 및 배출, 인력풀의 마련에 주력하는 등의 노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선순환구조를 염두에 둔 서울시내 멘토와 체계적 재교육 구조의 시스템화 및 1인 창조기업 등 자생적 교육 및 산학협력 구조의 마련이 요구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생태계(social ecology)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창조적 문화도시가 갖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와 지역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생태계 구성요소들의 연계망 확충 및 사업, 서울시 특화문화상품 발굴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특성과 역사성, 특히 도시의 정통성을 고려하는 생성과 소멸의 관계성, 상호의존적인 서울시 문화자원들의 연계성 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서울시 기반의 다양한 연계망 구축 및 스토리텔링 기반 명품 문화상품의 개발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며,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 산업체계 내 콘텐츠 투입을 통한 융합적 가치실현 및 부가가치 창출 통한 새로운 문화도시로서의 서울시 융합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 등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가치사슬(value chain)의 연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콘텐츠의 가치사슬 기

반 기능적 선순환 구조 마련 및 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bottleneck) 현상의 제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문화산업정책 등의 성과물 및 서울시 공공자원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메타콘텐츠 추출 및 활용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서울시 현실을 고려한 가능한 정책과제를 강구해 본다면, 1인 창조기업, 프로슈머, 전문가(기획, 창작)-제작(중소기업)-유통(지역 외 대기업)-소비, 지원(공공) 등 다양한 가치사슬별 협력 체계 및 리쿠르팅을 통한 협력프로젝트(collaboration project)의 마련, 서울시 상징 킬러콘텐츠 생산 지원 및 브랜드화 작업 등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순환과 피드백을 전제로 한 자기 조절 및 순환, 생산적 관점의 독창성을 창조적 서울시라는 특정 문화도시에 접목하려는 노력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효율성과 창조적 공간 도시자원의 축적 및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지원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 완결적 구조의 서울시라는 문화도시 시스템의 안정과 균형의 조율 시스템, 회복가능성(resiliency)을 극대화하는 자율적 메커니즘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는데, 도시 인프라의 확충과 자율적 예산집행체계의 마련과 책임, 다양한 아카이브로서의 서울시 특화 역사적 기반 콘텐츠의 축적 등 정책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역단위 특화 문화예술 등 콘텐츠 아카이브의 집단지성 형태의 오픈소스 시스템 인프라 마련 및 기존 메타DB 등 연계 종합시스템망의 조정 및 재구축이 창조적 문화도시라는 서울시의 발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성공적인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서울시내 창의자(전문가, 프로슈머)-시장(토착기업 등)-공공(서울시 정부,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지식과 콘텐츠의 교류 마켓플레이스 기반을 서울시내에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가적으로 생태계의 구성 인자들 간의 거버넌스 관계가 중요하며, 발전의 전제가 됨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알려진 대로 거버넌스는 복잡, 불확실하고, 다차원적이 되는 정책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이며, 다양한 파트너들 간의 정책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 구성에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거버넌스의 정책 참여자들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서울시라는 단위지역을 놓고 보자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부와의 역할 관계, 서울시정에 관련되는 정부와 참여조직들-기업, 연구소, 대학, 문화관련 NGO 등 주체들-간의 분권적 기능분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문모 (2005), 「창조산업의 경제적 기여와 서울시의 정책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제6권, 제4호, 2005, 101-120
- 라도삼 (2006), 「문화도시의 요건과 의미, 필요조건」, 『도시문제』 41권 446호, 11-25.
- 이병민 (2011), 「창조적 문화중심도시 조성전략과 문화정책 방향」, 『문화정책논총』 25(1): 7-36.
- 이순자, 장은교 (2012),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 찰스 랜드리 저, 임상오 역 (2005), 『창조도시』, 해남,
- Cooke, P. & Lazzaretti, L., Creative Cities, Cultural Cluster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Edward Elgar, 2008
- Coy, Peter, "The Creative Economy", Businessweek online : August 28, 2000 Issue
- Florida, R.,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Y: Basic Books, 2002
- Howkins, J., Creative Economy, NY: Penguin Press, 2001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 만화문화공간 ‘재미랑’
만화의거리 ‘재미로’
조성현황과 운영활성화 방안

박보경 팀장(서울산업통상진흥원 정책사업본부 애니타운조성팀)

만화문화공간 ‘재미랑’ · 만화의거리 ‘재미로’ 조성현황과 운영활성화 방안

박보경 팀장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정책사업본부 애니타운조성팀

namoo@sba.seoul.kr

I. ‘재미랑’, ‘재미로’ 조성전략

1. 추진배경 및 조성목적
2. 거버넌스형 조성과정

II. ‘재미랑’, ‘재미로’ 조성개요

1. ‘재미랑’ 조성개요
2. ‘재미로’ 조성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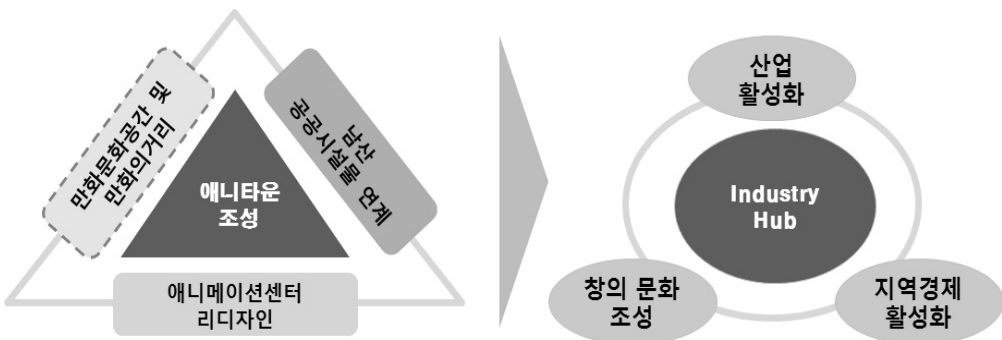
III. ‘재미랑’, ‘재미로’ 운영활성화 방안

1. ‘재미랑’, ‘재미로’ 조성전략

1. 추진배경 및 조성목적

남산에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동과 남산을 잇는 테마 앵커기능으로는 역부족이며 시설간 연계와 접근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남산 일대를 창의와 관광의 메카인 애니메이션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1단계 추진사업으로 만화문화공간과 만화의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과 관광산업 연계효과를 견인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서울시 핵심시정(애니타운 조성) 실현을 위한 1단계 조성



향후 2020년까지의 단계별 추진안 중 1단계 사업이 만화문화공간과 만화의거리 조성이며, 2단계 사업으로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리더십, 3단계는 남산 일대를 애니메이션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중장기 방향을 갖고 있다. 애니메이션타운은 1999년도에 개관하여 국내외에 많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리더십과 재미랑·재미로와의 연계 운영, 남산에 위치한 다양한 문화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남산의 북쪽 기슭을 서울형 문화생태계로 조성하는 열린 창의체험 테마파크를 지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대중적 인지도 확보를 통한 시장확대와 함께 관광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존의 개발주도형 대규모 환경정비사업에서 탈피하고 만화가, 지

역주민 등의 다양한 사용 주체가 이 지역만의 독창적인 스토리를 기반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여 서울의 역동성과 정체성을 지닌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있다.

2. 거버넌스형 조성과정

1년 6개월여 간의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지역 내의 수요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생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화가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결집하는 등 거버넌스형 추진체계의 근간을 만들기 위한 점이었다.

실제 조성과정에 있어서도 만화가, 관련협단체, 만화퍼블리셔 등 다양한 만화산업 관계자들과 클라우드 소싱 개념의 그룹스튜디오 방식의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여 본 사업의 가치와 컨셉을 도출하는 등 발전방향을 탐구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형성과 중장기 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의 미시적인 공간 특성과 보행환경 등을 조사하였고, 만화계와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만화반상회' 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70여명의 만화가가 80여개 콘텐츠의 사용을 무상 제공했고, 15개의 거리 공간 중 12개의 사유지를 지역주민이 제공하여 만화콘텐츠를 접목할 수 있었다.

[의견수렴 사례 : 만화반상회 개최]

- 사업현황 공유를 위한 공청회 형식의 사업설명회
-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의견 수렴
- 참석자 : 만화가, 지역주민 및 상인 등



[작가참여 사례 : 만화언덕 조성]

- 한국만화 100選 중 상위 40개 메가캐릭터 콘텐츠 유치
- 남산의 대표 특징인 옹벽을 활용하여 슈퍼캐릭터 전시홍보
- 캐릭터와 조명 등의 연출로 상징적인 랜드마크공간 조성



[주민참여 사례 : 만화공유공간 조성]

- 민간이 제공한 공유공간을 활용한 만화콘텐츠 접목
- 중화요리집, 게스트하우스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포토존 구성
- 거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공벤치(휴식공간) 조성



‘재미랑’ 과 ‘재미로’ 라는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도 페이스북을 활용한 네이밍 시민공모를 시작으로 명동 거리 투표 등을 거쳐 BI를 최종 완성하는 등 시민 참여형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전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SNS 기반 시민공모

2013년 7월 26일 ~ 9월 6일 (6주간)
총 550개 접수, 최우수작 등 10편 선정



2 명동 거리 투표

일시 : 2013년 10월 26일(토)
장소 : 명동 유니클로 앞
참여자 : 총 613명



3 네이밍과 BI 개발

[만화문화공간]

재미랑
Seoul Comics Space ZAEMIRANG


[만화의거리]

재미로
Seoul Comics Road ZAEMIRO

II. '재미랑', '재미로'의 조성개요

1. '재미랑' 조성개요

'작지만 살아있는 만화문화공간'의 입지 마련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물건 정보를 전수조사하여 10년 장기 임대를 통해 공간을 확보했다. 파사드 디자인은 '만화'의 한글 초성인 'ㅁ'과 'ㅎ'을 활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공간의 정체성을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거리의 색채계획을 수립했다.



· 위치/면적 : 중구 퇴계로 20길 42 / 438.7m²

구분	조성개요
옥상	만화다락방, 옥상전망대
3층	커뮤니티 공간
2층	전시갤러리 등
1층	전시갤러리, 안내, 휴게공간 ('14년 판매기능 추가)
지하 1층	전시갤러리, 체험, 공연

공간의 저층부 3개층은 주로 전시갤러리 기능을 갖췄고, 3층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만화가와 만화가 지망생들의 개방형 혁신 공간을 조성하여 만화계 네트워킹 활성화와 주민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옥탑은 상설 자유 이용이 가능한 만화다락방으로 만들어 친근한 만화 읽기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도록 했다.



전시갤러리



커뮤니티공간



만화다락방

2013년 12월 19일에 개관한 기획전시의 컨셉은 남산과 명동 일대에 새롭게 등지를 더 한국 만화계가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를 담아 ‘만화네 집들이’로 정했다. 윤태호(‘미생’), 주호민(‘신과함께’), 하일권(‘목욕의신’) 등 최근 주목 받는 한국 만화가 9인의 작품이 함께 전시 중에 있으며, 매주 토요일 만화작가들의 팬사인회와 강좌 등이 개최되고 있다.



2. ‘재미로’ 조성개요

서울의 옛 골목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퇴계로 20길에 만화를 탐색하며 즐기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험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통해 5개의 만화문화정류장을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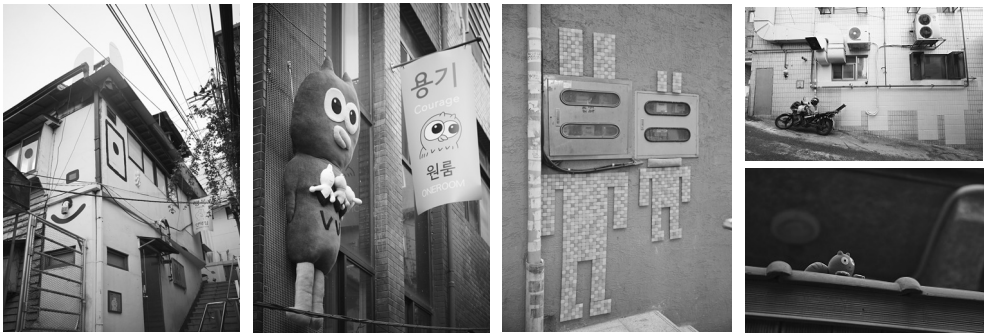
· 위치/면적 : 중구 퇴계로 20길 / 길이 450m / 면적 5,000m²

구분	조성개요
만화문화정류장	상상공원, 만화삼거리, 사연우체국, 재미운동장, 만화언덕
공유만화공간	민간이 제공하는 12개 공간
불량경관 개선	지주, 골목개단 개선

사업지 내에 사유지가 없어 만화를 접목할 수 있는 입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나 민간이 제공한 12개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공유만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었고, QR 코드를 통한 모바일플랫폼을 개발하여 보다 심층적인 콘텐츠의 감상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재미로에서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연결된 골목계단은 만화가들이 직접 공간을 연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건물입면에 최적화된 핸드메이드 콘텐츠를 접목하였다.



Ⅲ. ‘재미랑’, ‘재미로’ 운영활성화 방안

재미랑과 재미로에 만화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에 주력하고, 만화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문화적인 거점 공간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산 순환로 초입인 소파로와 애니센터로 접근하는 계단골목 등을 연결하여 개관 당시의 단선적인 거리를 공감각적인 입면체로 확장함으로써 명동상권, 남산의 문화관광자원 등의 주변인프라와 연계하고 이용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5대 국제 페스티벌 중 하나인 SICAF의 성공 안착과 주말 아트마켓 개최, 코스플레이 체험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014년 주요 사업방향은 아래와 같다.

네트워킹 → 작가·업계·주민간 소통과 협업 활성화	
소셜카툰네트워크	▪ 커뮤니티공간 멤버십 구축을 통해 특강, 작가와의 만남 등
만화 이색가게	▪ 거리 상점과 작가의 1:1 매칭 후 간판개선 등 지원
비즈모델개발 → 만화의 OSMU효과를 극대화	
만화비즈모델개발	▪ 만화 상품/서비스를 개발 초기 기획비 및 상품개발비 지원
사연만화	▪ 일상사연을 만화로 창작하여 전시·보급
유통·판매 → 만화의 산업적 가치 제고	
만화아트마켓	▪ 만화원화, 일러스트, 공예품 등의 플라마켓 개최
만화숍인숍	▪ 재미랑에 만화 콜라보레이션 상품 등 판매시설 운영
마케팅·홍보 → 만화산업 및 거리 활성화	
상권활성화	▪ SNS를 활용한 마케팅, 팸투어, 언론홍보, 거리이벤트 등
만화쇼케이스	▪ 만화작가의 작품세계를 알릴 수 있는 작가참여형 기획전시

SEOUL ECONOMIC BULLETIN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스

■ 서울시민들, 은퇴 후 생활 계획은?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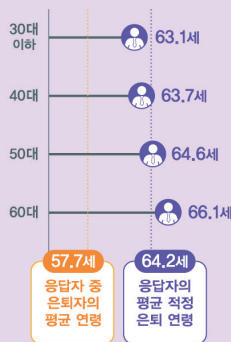
장윤선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서울시민들, 은퇴 후 생활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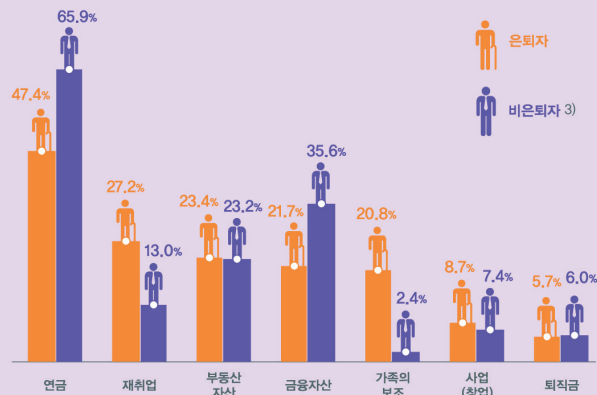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서울시민들, 은퇴 후 생활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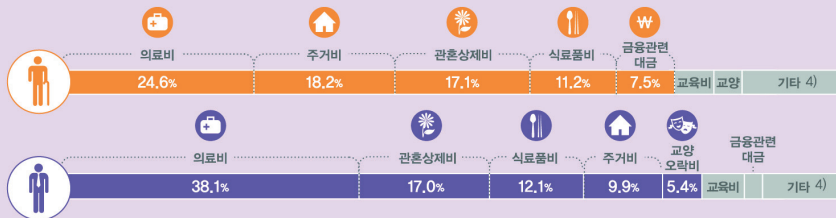
연령별 은퇴 적정 연령과 은퇴자 평균 연령



은퇴 후 생활비 총당 계획과 방법²⁾ (복수응답)



은퇴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은퇴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연령은 64.2세이며 은퇴 전·후의 생활비 총당 계획은 '연금', 지출 부담 항목은 '의료비' 가 가장 높음

-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걱정 은퇴 연령은 64.2세로 실제 은퇴자의 평균 연령 (57.7세)보다 6.5세 높음
 - 30대는 63.1세, 40대는 63.7세, 50대는 64.6세 60대는 66.1세로 나이가 들수록 걱정 은퇴 연령이 높아짐
- 비은퇴자와 은퇴자의 생활비 총당 방법 1순위는 '연금'
 - 서울 시민들은 은퇴 후 생활비 총당 계획으로 현재 은퇴자보다 연금(65.9%)과 금융자산(35.6%)에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함
 - 은퇴자들은 현재 '재취업' (27.2%), '가족의 보조' (20.8%)로 생활비 총당을 한다는 응답이 비은퇴자에 비해 비율이 높음
- 비은퇴자와 은퇴자의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1순위는 '의료비'
 - 은퇴자들은 '의료비', '주거비', '관혼상제비', '식료품비', '금융관련대금' 순으로 부담을 느낌
 - 비은퇴자들은 '의료비', '관혼상제비', '식료품비', '주거비', '교양오락비' 순으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함
 - 은퇴 전·후자의 생활비 총당 계획과 부담 지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은퇴 후 실제 부담 항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주: 소비자체감경기 조사모집단은 2010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부터 69세까지의 서울시 일반가구로 한정하였으며 미혼은 제외하며, 목표 표본은 서울 소재 1,000가구이며 가구주의 연령별 가구 분포는 연령별 구별 비례에 맞게 표본비율을 할당함

자료 : 2014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부가조사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표 1> 가구주 연령별 적정 은퇴 연령

(단위: %)

	전체	30대 이하 가구주	40대 가구주	50대 가구주	60대 가구주
전체	100	100	100	100	100
40대	0.3	1.1	0	0	0
50대	7.5	12.8	7.6	4.2	4.8
60대	72.4	67.9	76.3	77.4	63.7
70대	17.1	15.2	13.3	16.4	27.8
80세 이상	0.6	0	0.3	0.7	2
모름/무응답	2.1	3	2.4	1.3	1.7
평균나이	64.2세	63.07세	63.71세	64.59세	66.13세

주: 1,000명 대상 '귀하는 적절한 은퇴 연령이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2> 은퇴자의 연령

	전체	
	비율(%)	인원(명)
전체	100	108
40대	4.5	5
50대	60.5	65
60대	35	38
평균	57.77세	

주: 108명 대상 '귀하는 몇 세에 은퇴하셨습니다?'

〈표 3〉 은퇴 후 생활비 총당 계획

(단위: %)

	은퇴자	비은퇴자
연금(국민연금, 기업연금 등)	47.4	65.9
재취업	27.2	13.0
부동산 자산	23.4	23.2
금융 자산	21.7	35.6
가족들로부터의 보조	20.8	2.4
사업(창업)	8.7	7.4
퇴직금	5.7	6.0
정부/자치 단체의 보조	2.0	1.1
기타	1.6	0.6
모름/무응답	1.7	12.5

주: 은퇴자 108명 비은퇴자 892명 대상 '귀하는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총당할 계획이십니까?' (3개 이상 대답)

〈표 4〉 은퇴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

(단위: %)

	은퇴자	비은퇴자
의료비	24.6	38.1
주거비	18.2	9.9
관혼상제비	17.1	17.0
식료품비	11.2	12.1
금융 관련 대금	7.5	2.3
교육비	4.9	5.2
교양 오락비	3.6	5.4
세금 및 공과금	2.6	2.0
교통 통신비	0.9	0.4
없음	0.9	0.6
모름/무응답	8.5	7.2

주: 은퇴자 108명 비은퇴자 892명 대상 '귀하는 은퇴 후 지출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SEOUL ECONOMIC BULLETIN

경제동향

- **요 약**
- **생 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 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부 동 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용**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 출 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요약 | 1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
산

- 서울의 1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9.2로 전년동월대비 11.4% 하락
- 1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8.9% 감소, 14.0% 증가하여 경기하강기

소
비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1,935억원으로 전국(6조8,240억원)의 32.1%를 차지
- 1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4.2%, 대형마트 판매액은 18.9% 증가

고
용

- 서울의 1월 취업자는 510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6천명(1.0%)이 증가
- 서울의 1월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1.0%p 증가,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

물
가

- 2014년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2010년=100.0)로 전년동월 대비 0.6% 상승

부
동
산

- 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강북지역(0.04%) 특히 강남구(0.14%)와 영등포구(0.11%)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02% 상승
- 서울의 1월 주택전세가격은 강남지역(0.76%) 특히 서초구(1.54%)와 마포구(1.07%)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64% 상승

금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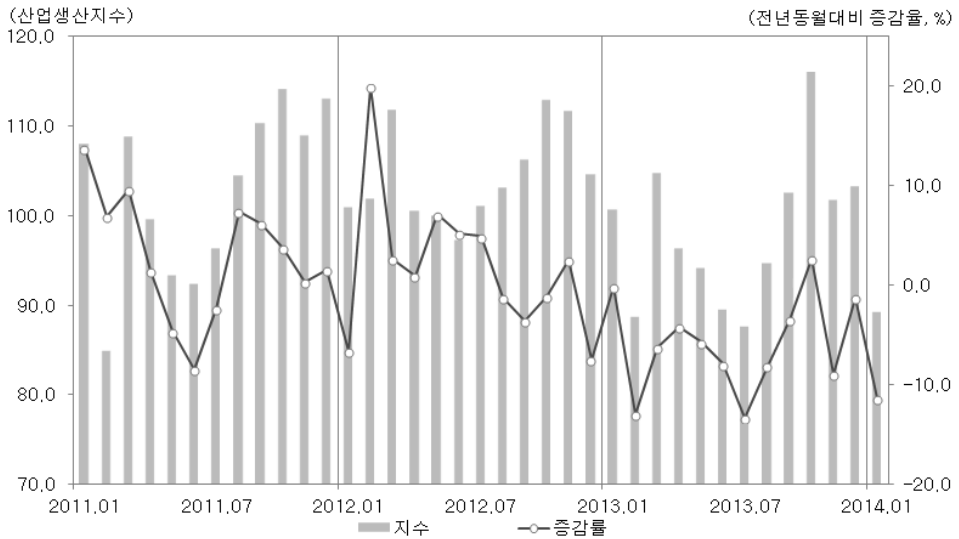
- 서울의 1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72조 9,354억 원으로 전월대비 1.0% 증가, 그 중 가계대출은 177조 9,131억 원으로 전월대비 0.4% 증가
- 서울의 1월 신설법인수는 2,238개로 건설·설비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4.5% 증가
- 서울의 1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1.7% 감소

수
출
입

- 서울의 1월 수출은 48.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4% 감소,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1월 수입은 1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생 · 산 |

- 서울의 2014년 1월 제조업생산지수 89.2(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11.4% 감소
 - 공업구조별로 중공업과 경공업 부문 각각 전년동월대비 27.0%, 1.0% 감소
 -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동월대비 고무·플라스틱(25.4%), 기타제품(8.3%), 섬유제품(5.8%)등 증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39.8%), 기계장비(-23.5%), 전기·가스·증기업(-12.7%) 등 각각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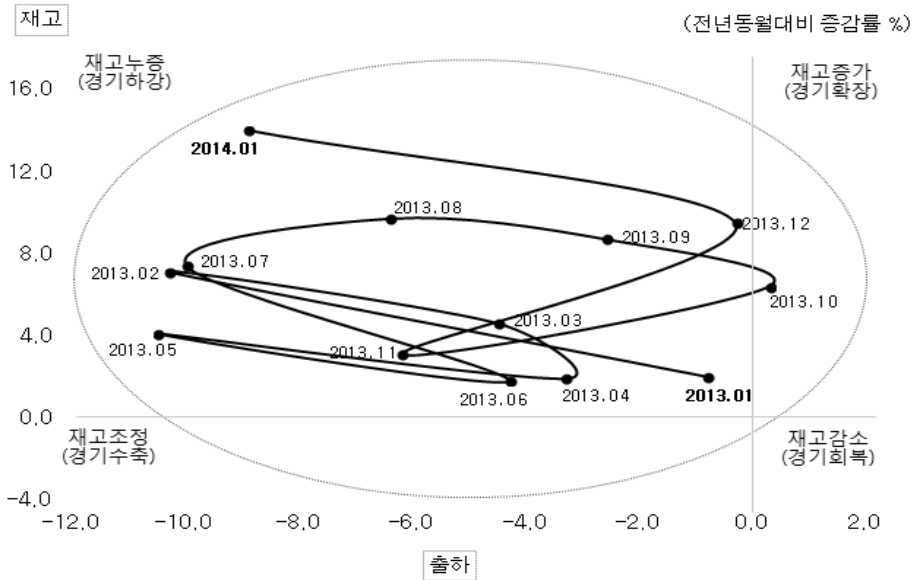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1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재고 증가로 경기확장기
 - 서울의 1월 출하지수는 92.0(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8.9% 감소
 - 서울의 1월 재고지수는 121.9(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14.0%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상승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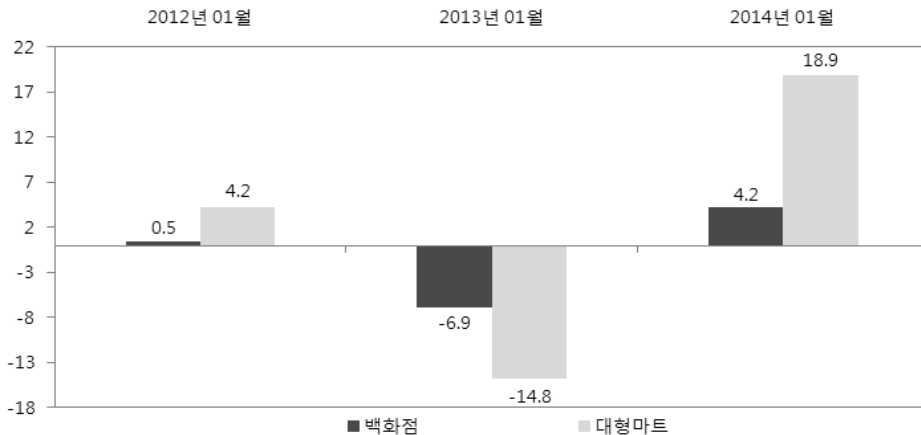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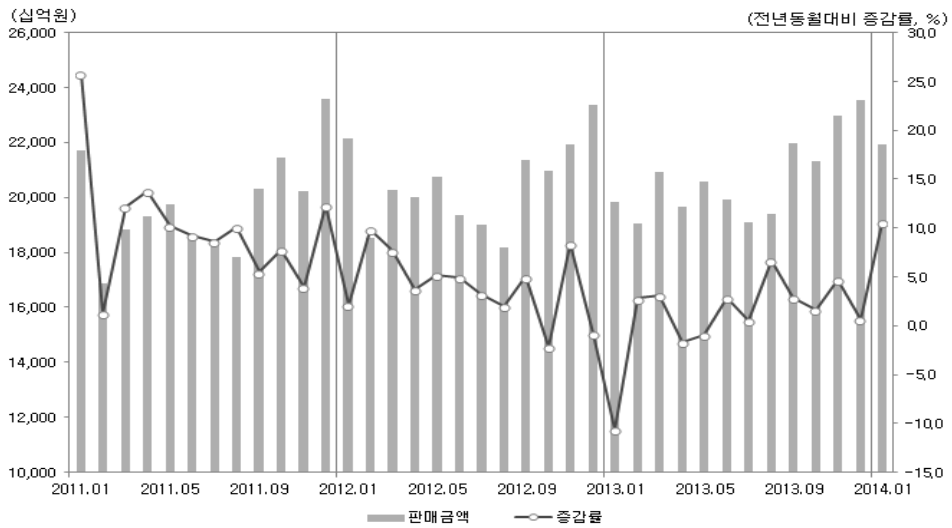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1,935억원으로 전국(6조8,240억원)의 32.1%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1,582억원으로 전국(2조5,932억원)의 44.7%,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353억원으로 전국(4조2,308억원)의 24.5%를 차지
-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0.0으로 전년동월대비 8.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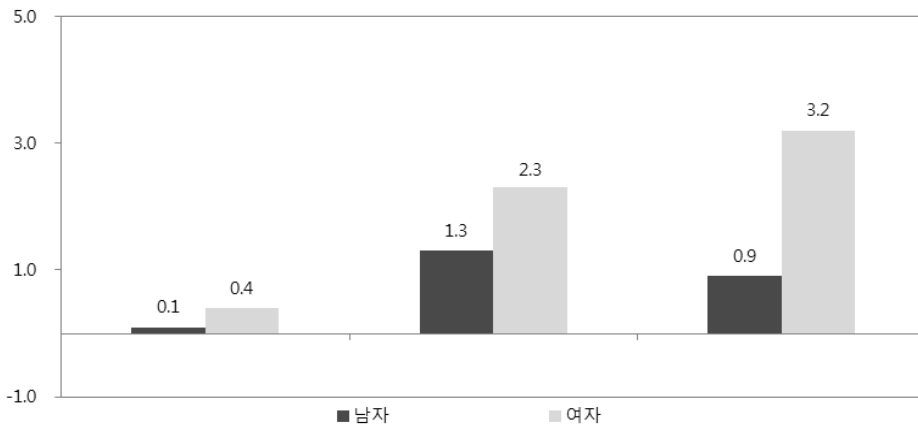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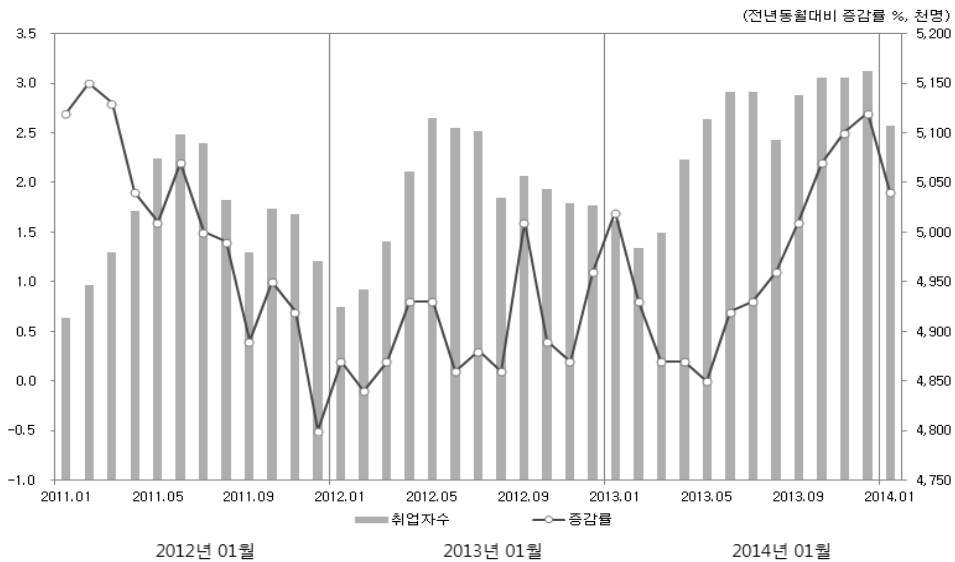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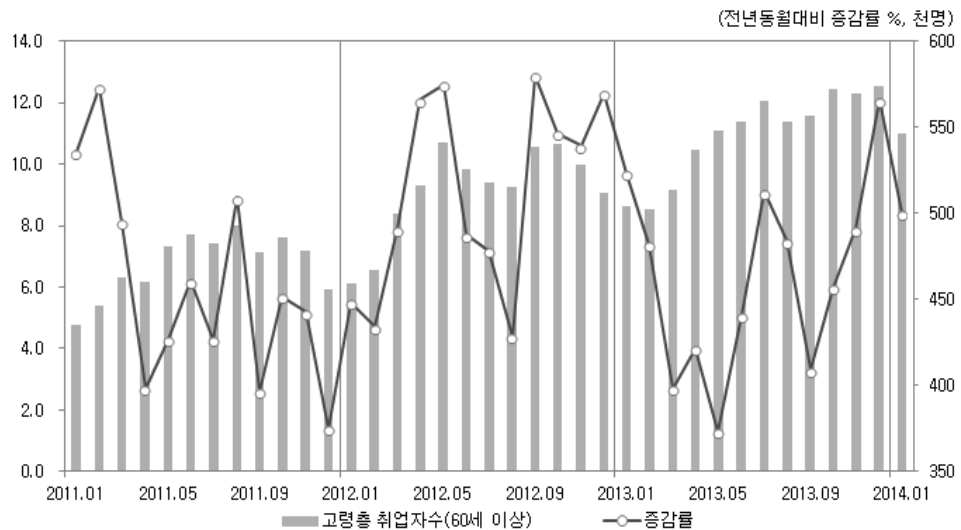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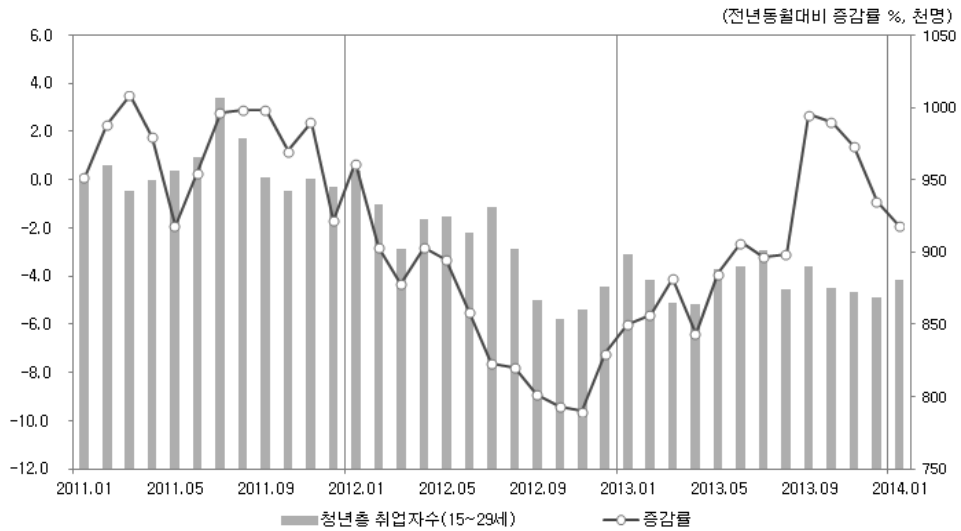
- 서울의 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서울의 1월 취업자는 510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6천명(1.0%)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5만3천명, 여자는 225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만6천명(0.9%), 여자는 7만1천명(3.2%)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3만2천명(6.7%),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7만4천명(5.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만명(2.0%), 각각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1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 고령층(60세 이상)은 플러스 증가세
 - 서울의 1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8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하여 2개월 연속 증감률 하락세
 - 서울의 1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4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4%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3개월 연속 상승세이던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1월 들어 다소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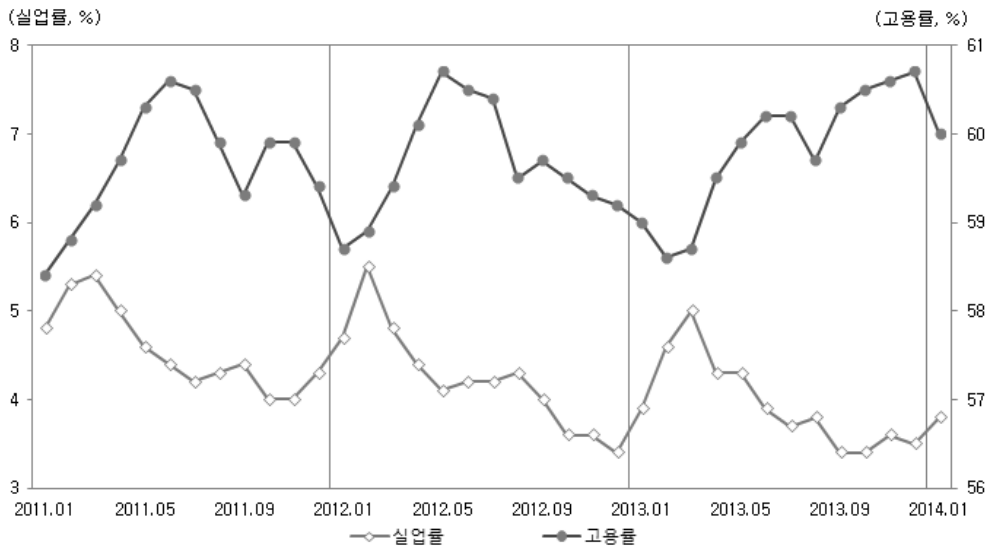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1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월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1.0%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9%로 전년동월대비 0.8%p, 여자는 50.9%로 1.4%p 각각 증가
 - 2014년 1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58.5%)보다 1.5%p 높은 수준

- 서울의 1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동일,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월 실업자는 20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6%)이 감소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 여자는 3.4%로 동일
 - 2014년 1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5%)에 비하여 0.3%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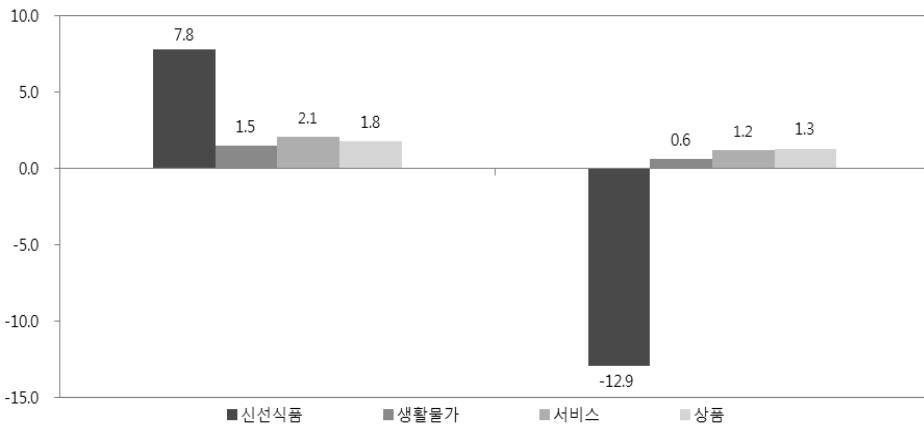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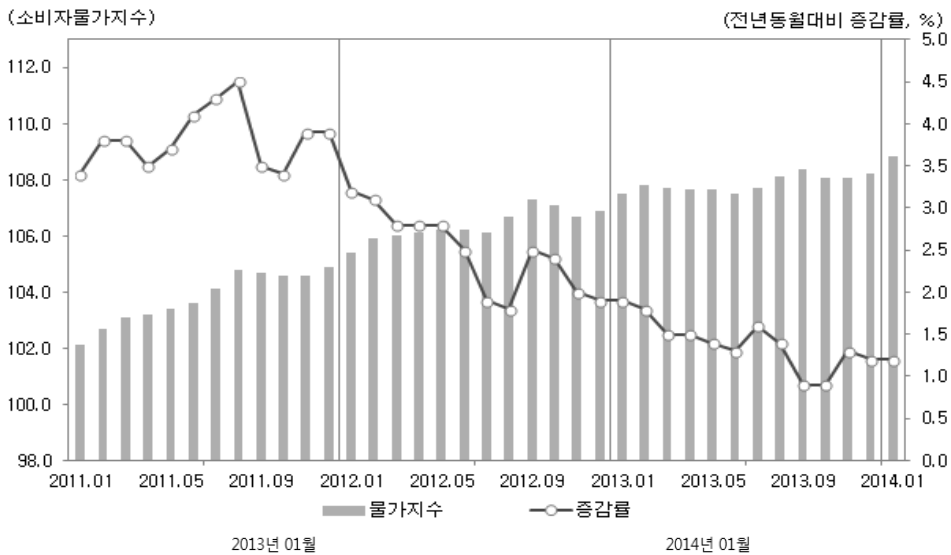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서울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2013년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0.6%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5%), 교통(-0.2%), 교육(-0.1%), 통신(-0.1%)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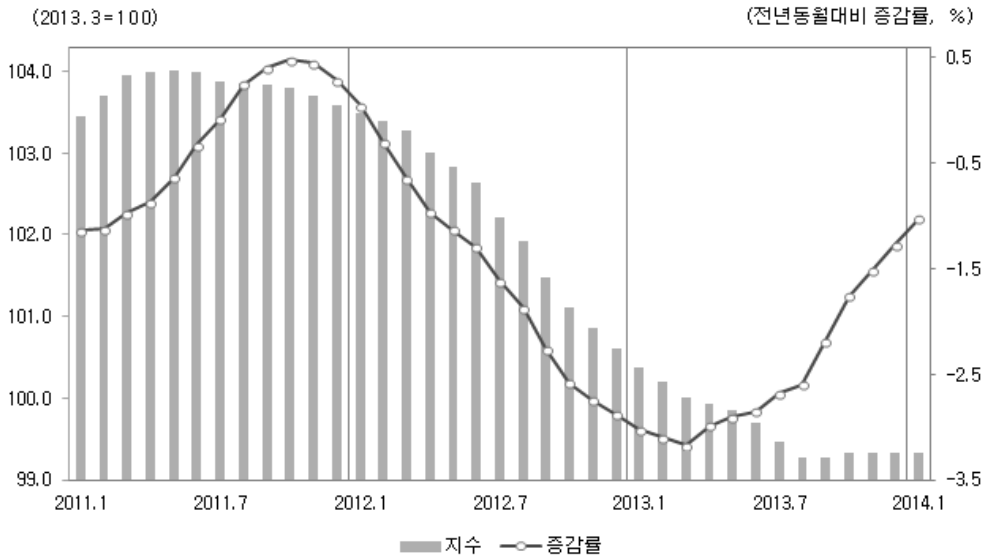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2% 상승
 - 강북지역(0.04%) 전월대비 상승, 강남지역(-0.01%) 전월대비 하락
 - 상락률 상위지역: 강남구(0.14%), 영등포구(0.11%), 은평구(0.11%), 성북구(0.07%)
 - 단독주택(0.04%), 아파트(0.03%), 연립주택(-0.04%)

- 전국의 1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11% 상승
 - 광역시(0.20%), 기타지방(0.20%), 수도권(0.04%)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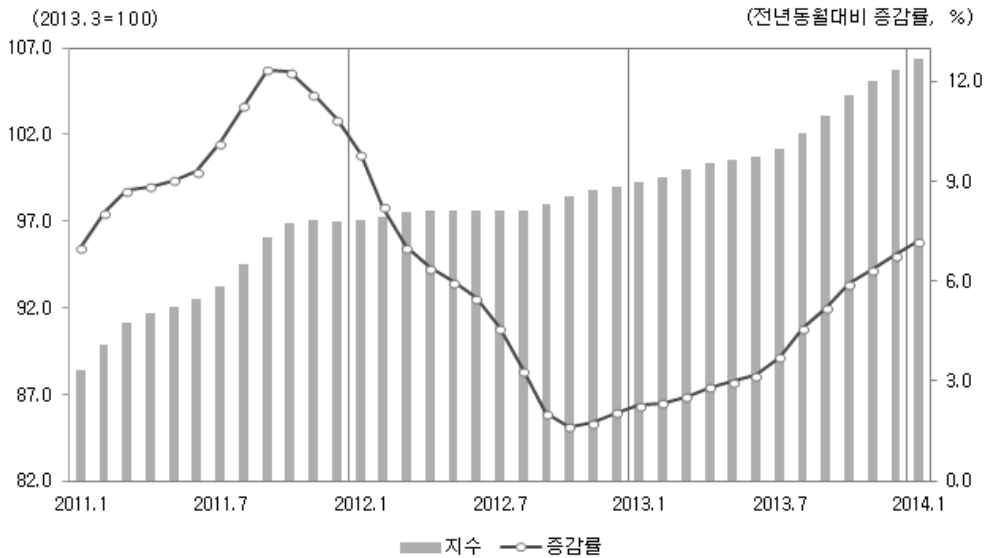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증가,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매매가격(1,623만원)은 전월(1,622만원)대비 0.20% 증가
 - 매매거래건수(4,868건)는 전월(6,540건) 대비 25.6% 감소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1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64% 상승
 - 강남지역(0.76%), 강북지역(0.51%) 등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서초구(1.54%), 마포구(1.07%), 동작구(1.05%), 성북구(0.87%)
 - 아파트(0.80%), 연립주택(0.50), 단독주택(0.24%) 등 상승세 지속

- 전국의 1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41% 상승
 - 수도권(0.53%), 광역시(0.23%), 기타지방(0.31%)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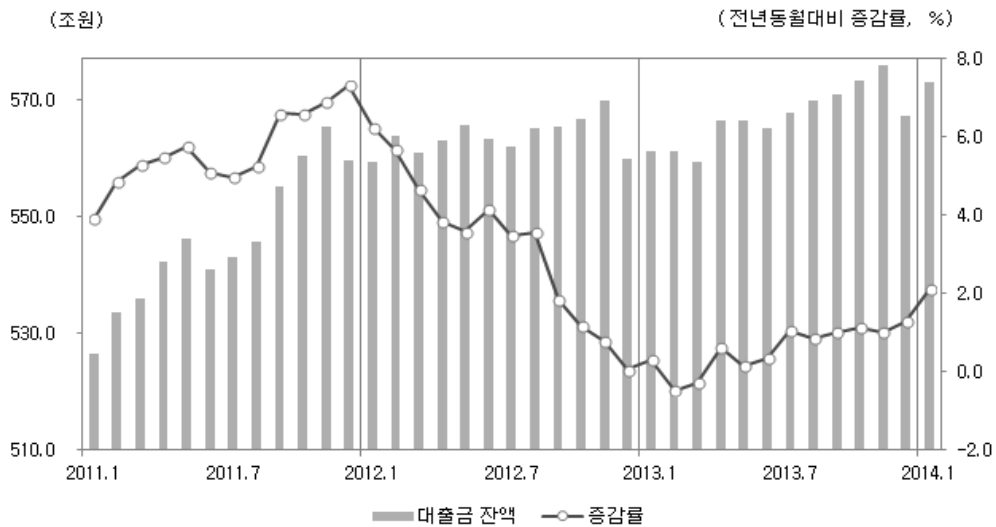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전세가격(평균 980만원)은 전월(971만원)대비 1.0% 증가
 - 전세거래건수(6,480건)는 전월(7,907건) 대비 18.0% 감소

| 가 · 계 · 대 · 출 |

- 1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572조 9,354억원)은 전월(567조 4,622억원)대비 1.0% 증가
 - 그 중 예금은행(467조 9,248억원)과 비예금은행(105조 106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4% 증가, 3.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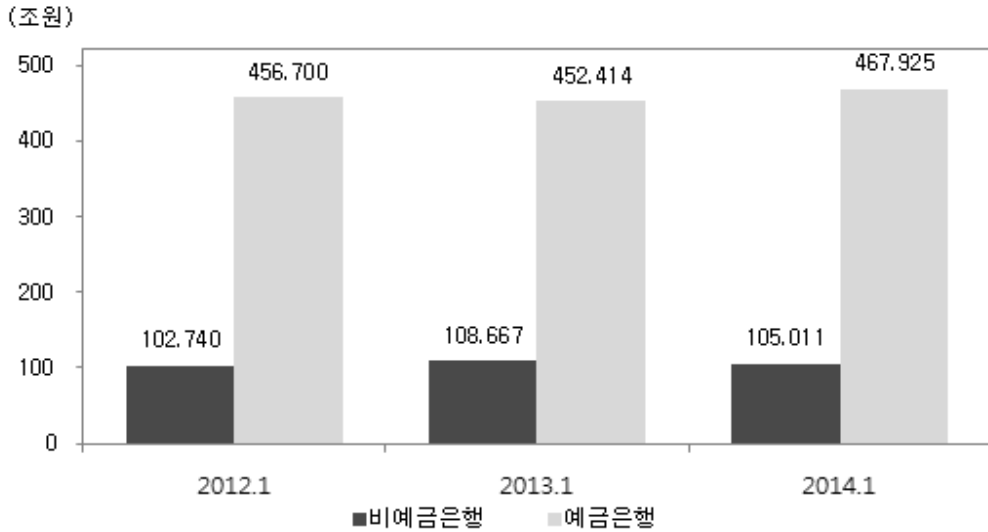
- 1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1,523조 8,673억원)은 전월(1,514조 9,932억원)대비 0.59%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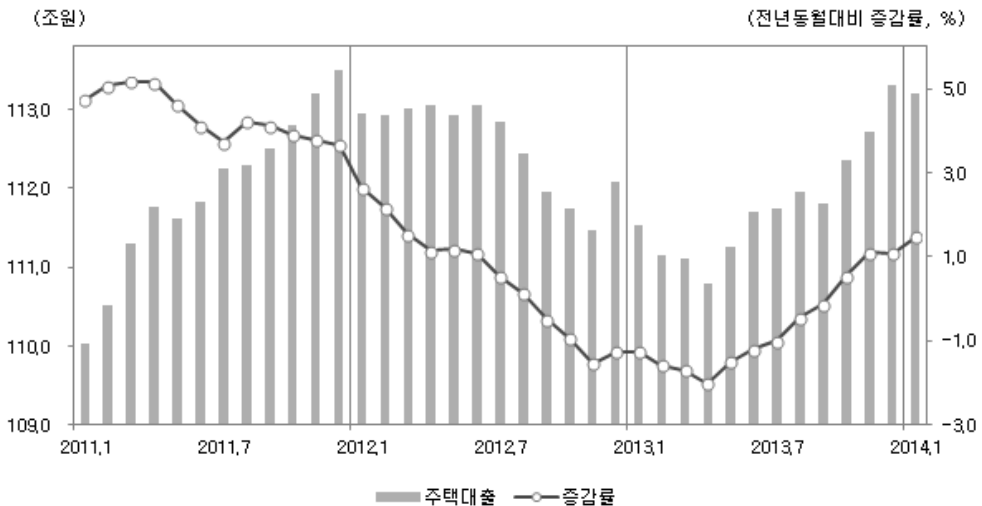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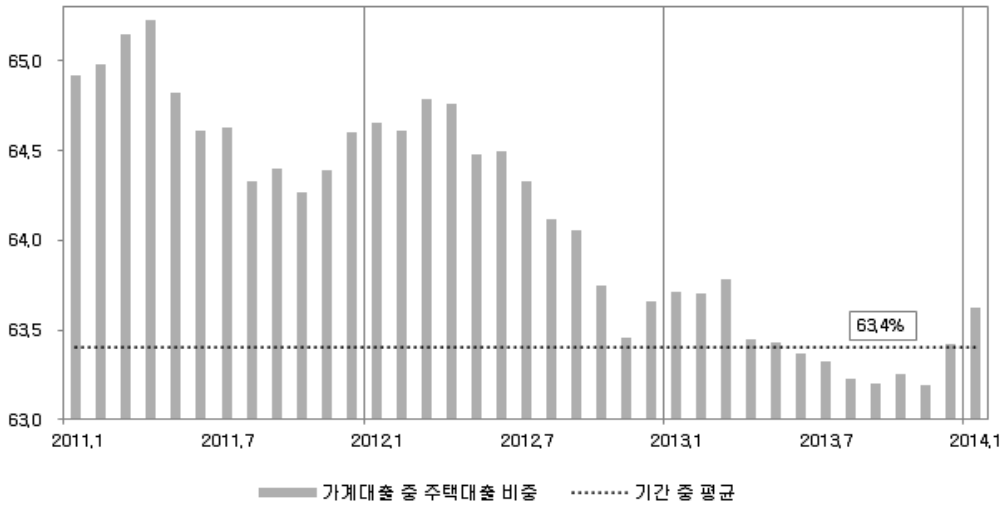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감소

- 은행 가계대출(177조 9,131억원)은 전월(178조 6,809억원)대비 0.4% 감소
- 그 중 주택대출(113조 1,986억원)은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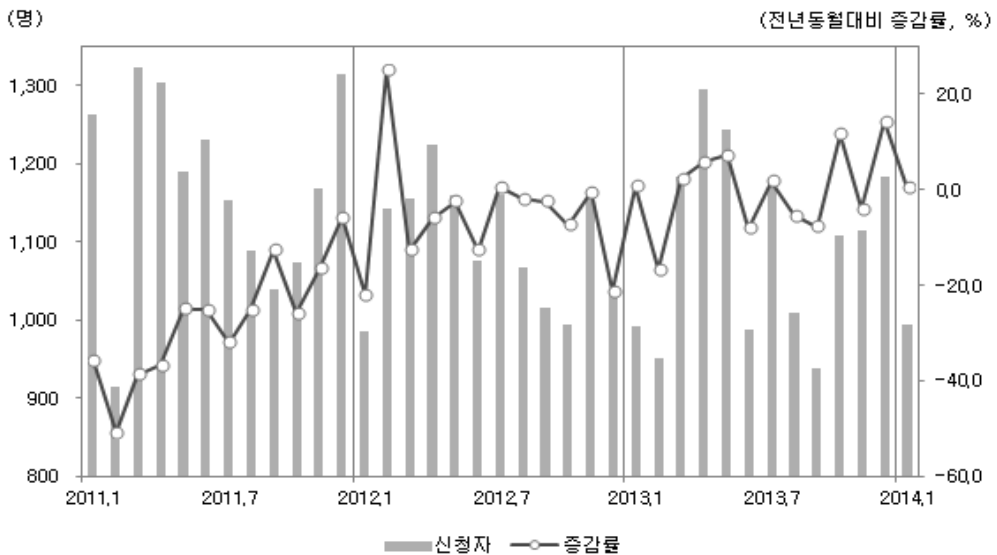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

- 개인파산 신청자(995명)은 전월대비 15.9% 감소,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4.9%)은 전년동월대비 60.0%p 증가, 면책 기각률(4.0%)은 전년동월대비 2.5%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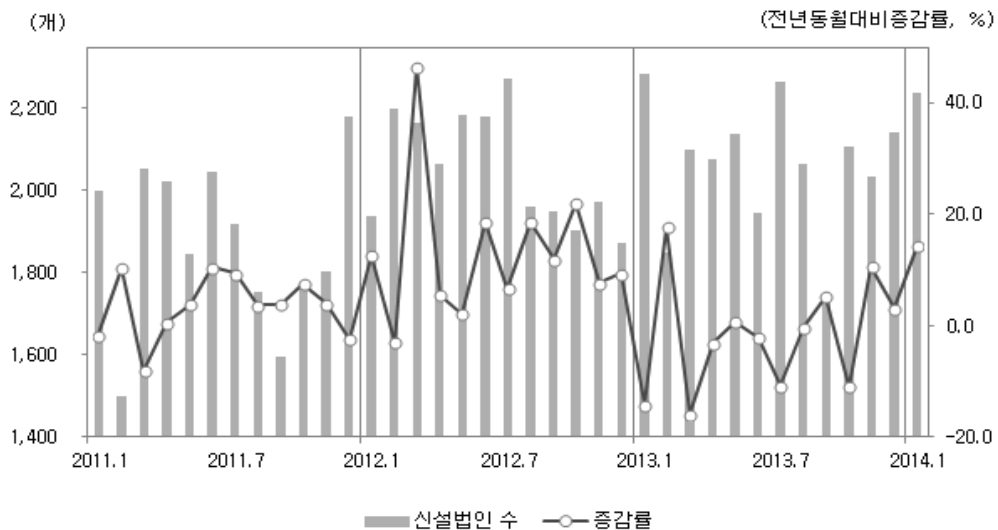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 신·설·및·부·도·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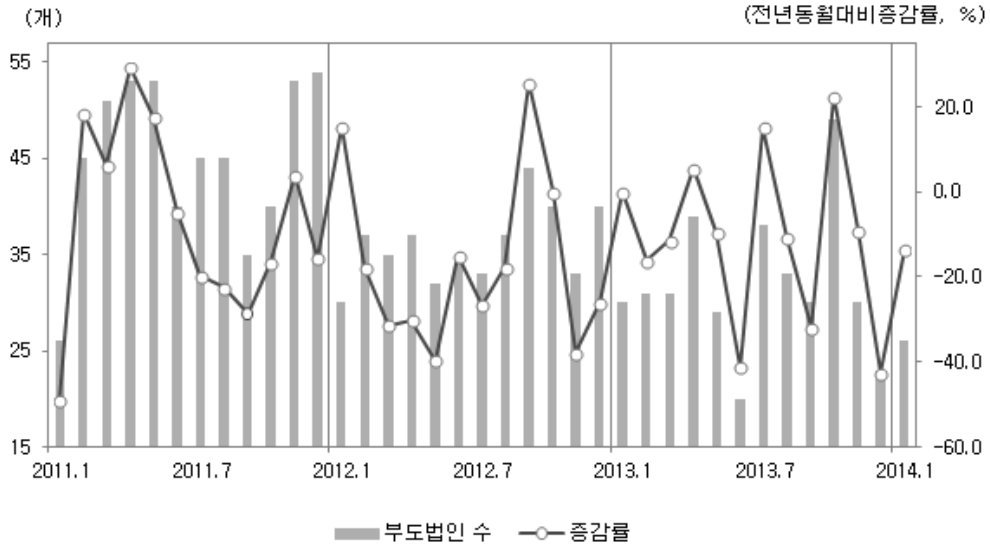
- 서울의 1월 신설법인 수는 건설 및 설비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238개로 전월대비 4.5%(96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2.0%(45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53.6%(52개)증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 대비 각각 7.1%(22개), 1.0%(18개) 증가

- 서울의 1월 부도업체 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26개로 전월대비 13.0%(3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13.3%(4개) 감소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각각 85.7%(6개), 40.0%(2개) 증가, 제조업은 전월대비 45.5%(5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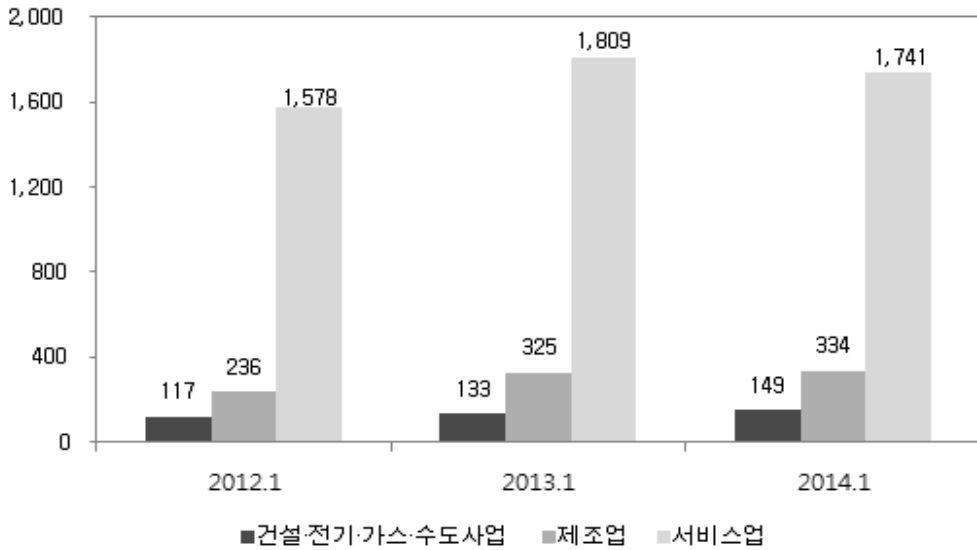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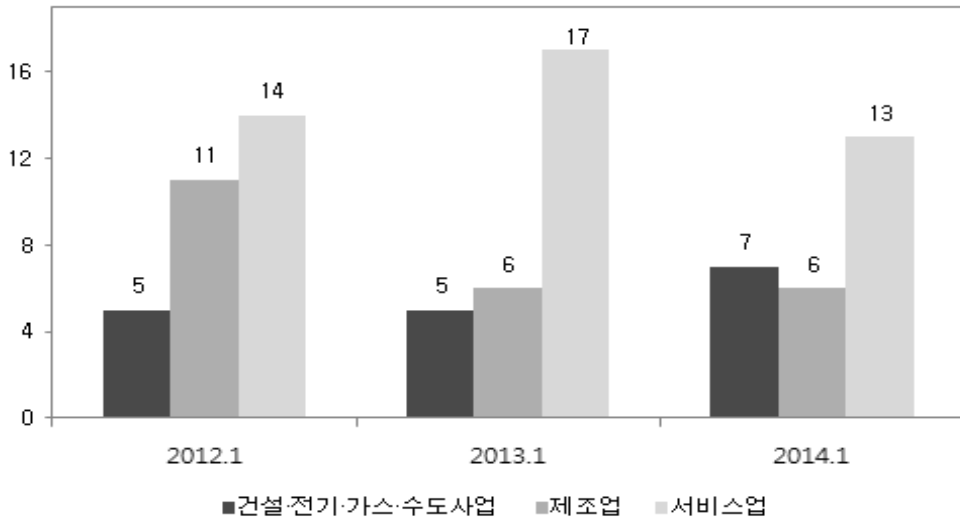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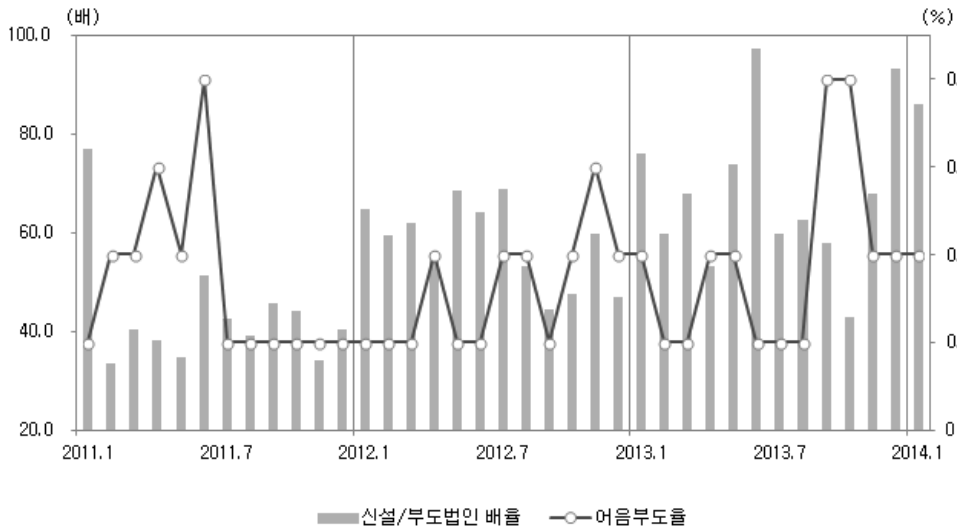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1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86.1배로 전월 (93.1배)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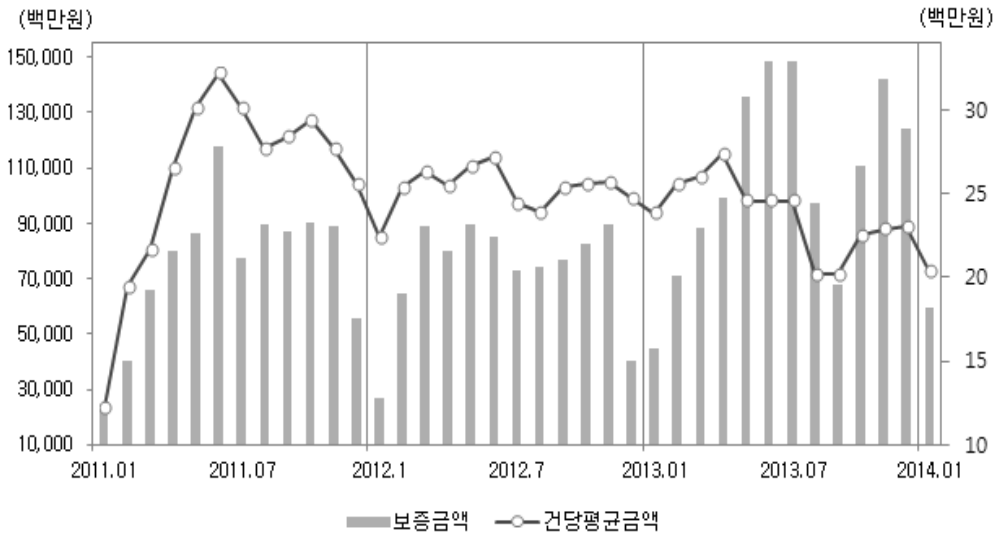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 서울의 1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59,679백만원, 2,930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51.9%, 45.4% 감소,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1.7% 감소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34.0%, 56.9%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4.5%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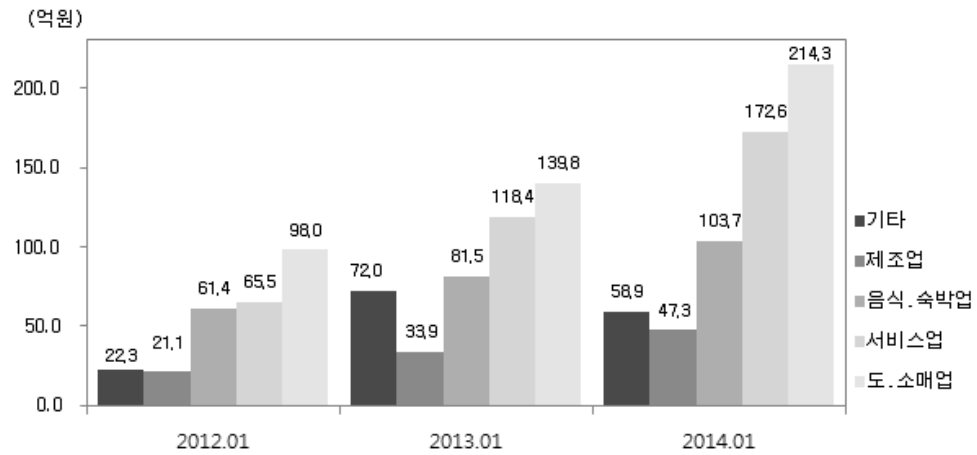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서울의 1월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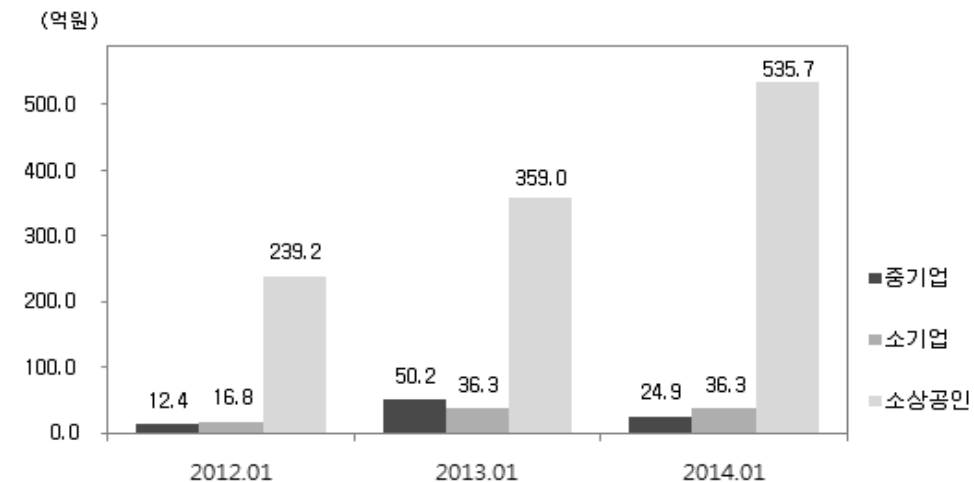
- 1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7.9%로 전월(9.7%) 대비 1.8%p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5.9%로 전월(40.5%) 대비 4.6%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7.0%로 전월(7.1%)대비 0.1%p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4.1%로 전월(37.6%)대비 3.5%p 감소

■ 서울의 1월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9.8%로 전월대비 4.4%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94.4%로 전월대비 1.8%p 감소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6.1%로 전월대비 3.1%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2.6%로 전월대비 0.9%p 감소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4.2%로 전월대비 1.3%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2.6%로 전월대비 0.4%p 증가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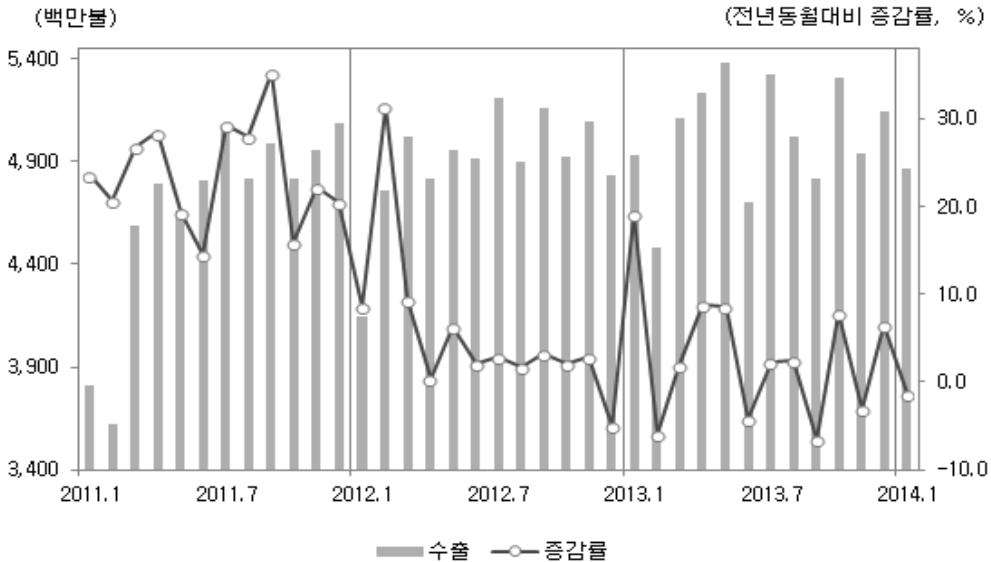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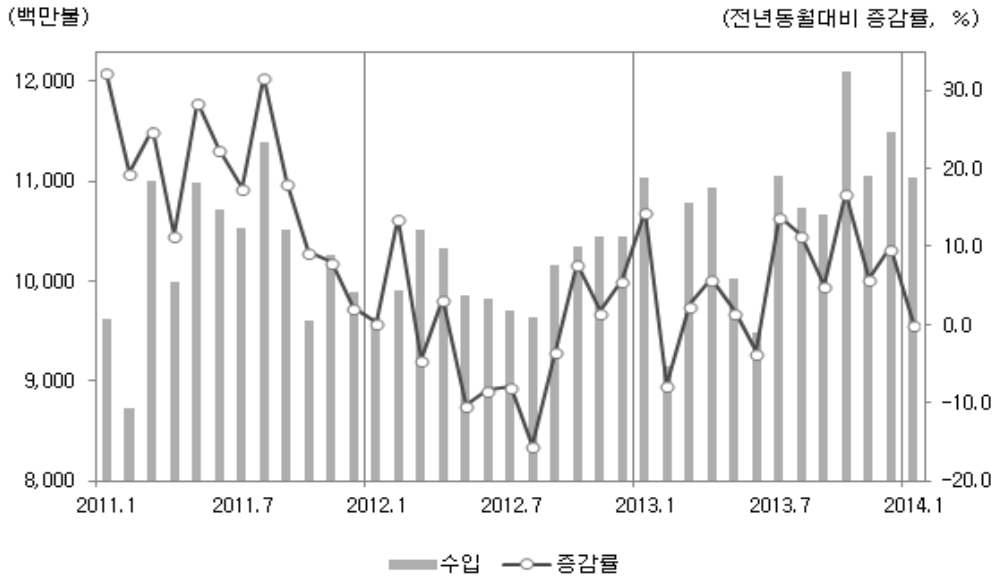
- 서울의 1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수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8.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하였고 수입은 110.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1%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56.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하였고 수입은 448.2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0% 감소

- 서울의 1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 부품,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 부품이 510백만 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합성수지, 반도체,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1,251백만 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의류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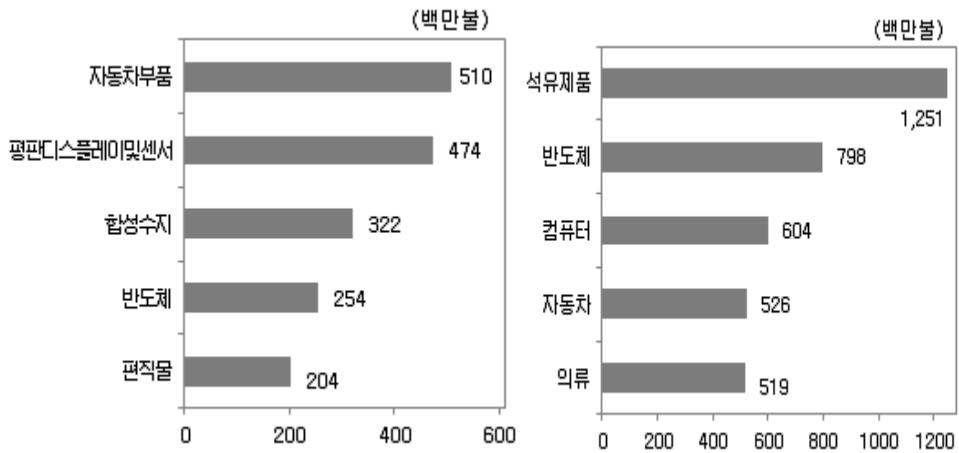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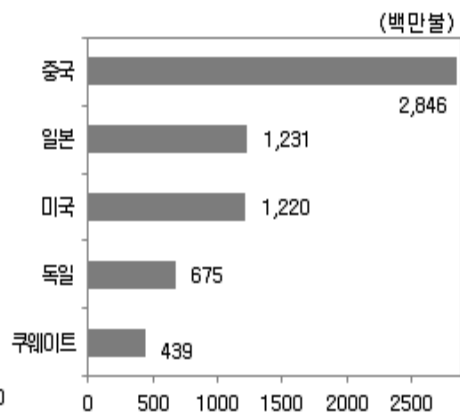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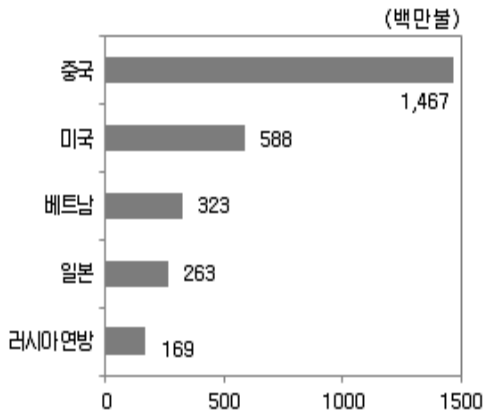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1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1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한 1,467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연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2,84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쿠웨이트 연합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1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1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4년 1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4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4년 1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4년 1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4년 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4년 1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4년 1월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4년 1월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